

안전보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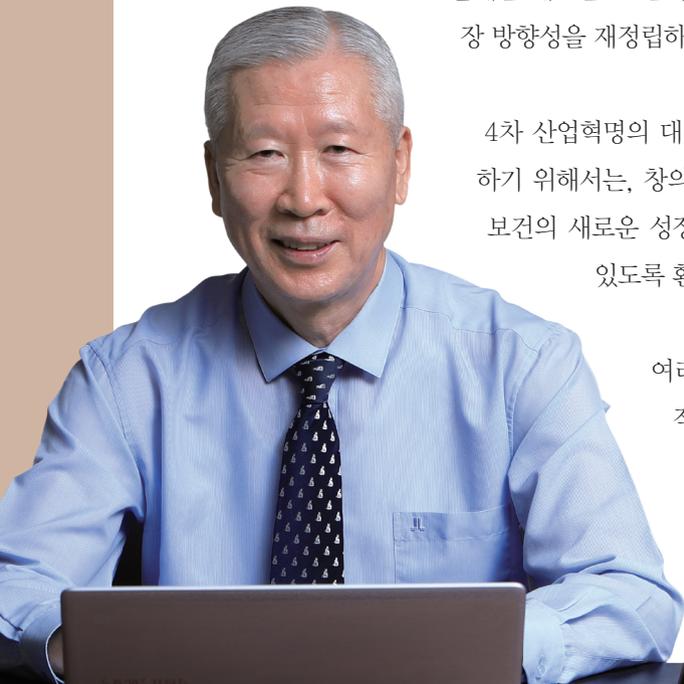
올 한해도 안전보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쉽지 않은 도전들이 많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온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건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60년의 준비를 위해,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속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기술력을 갖춘 혁신 인재 육성으로 산업보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원활하게 세대 교체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불황과 위기는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불경기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의미이지,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





(김난도 저, 미래의창)에서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를 2022년 트렌드로 담았습니다. 내포된 뜻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으로부터 기인하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라는 단어를 빼고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감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여 2022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과 보전이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헬시플레저 트렌드의 확산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중점을 바꾸는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준비된 사람은 불경기에 더 큰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다변화되는 기업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큰 변화의 물결을 타고 정부, 기업, 지역사회, 학회들과 함께 더 발전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불안감이 있겠지만, 『건강한 일터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여정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시작의 단단한 토대를 굳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산업안전·보건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백헌기